

임종석·양정철 복귀... 민주 인적 역량 강화

임종석 총선 출마 유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직 고심 장관 발탁 의원들도 복귀... 유시민 '알릴레오' 측면 지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인적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당장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 외곽에 있었던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의 더불어민주당 복귀가 임박한 상황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당 복당 신청을 한데 이어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의 당 복귀도 사실상 '초입기'에 들어갔다. 문재인정부 초대 장관으로 발탁된 의원들도 개각과 함께 다시 당으로 돌아온다. 이들은 당과 청와대의 가교 역할을 하며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8일 복당 신청을 한 임종석 전 실장은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시된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나 16·17대 의원을 지낸

서울 성동을(현 중구·성동을)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남북관계 등 청와대에서 쌓은 경험을 활용할 만한 당직을 임 전 실장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내 남북 관계와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맡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임 전 실장 등을 만나 본인들의 구상을 들어보고, 청와대에 있던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지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면서 "청와대에 중요한 경험을 했고, 원래 정치를 해왔으니 당에 와서도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민주당 전제철 의원과 함께 '3철'이라고 불리는 양정철 전 비서

관도 현재 체류 중인 일본에서 조만간 돌아온다. 이해찬 대표는 최근 양 전 비서관을 직접 만나 당 복귀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직을 맡아 줄 것을 제안했고, 양 전 비서관은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민주연구원장인 김민석 원장의 임기는 오는 5월로 종료된다. 민주연구원장의 자리는 합의가 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공천과 관련한 각종 내부 전략을 제시한다. 내년 총선 공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정철 전 비서관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양 전 비서관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떠한 역할이라도 맡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 전 비서관이 민주연구원장을 맡는다면 이는 당내 역학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됐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도훈환 문

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현역의원 장관들도 개각과 함께 복귀를 앞두고 있다. 이들 가운데 김현미·김영춘 장관은 오는 5월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기존 친문 인사들과는 색깔이 다르다는 점에서 당내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요구와 맞물려 있다.

정치권과 거리를 뒀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지난해 10월 재단 이사장 취임과 함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로 맹활약 중이다. 공직을 맡거나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유 이사장의 이 같은 활동은 민주당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지층 결집 등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크게 앞서고 있지만 내년 총선 승리는 장담할 수 없다"며 "특히, 총선 승리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과 정권 재창출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여권이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봄바람 부는데 '한겨울' 국회

민주-한국당 대치 여전... 정상화 논의 번번이 빈손

여야의 극심한 대립으로 2월 임시국회 개최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이제 3월 국회로 정치권의 논의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제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강 대 강 대치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국회 정상화 협상에 따른 3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야는 사사건건 맞서며 올해 들어 분회의 한 번 열지 못했다.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되기는 했으나 개점휴업 상태로 지난 17일 문을 닫았다.

또 2월 임시국회는 여당의 반대로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 이에 각종 민생법안에는 먼저만 수북이 쌓였다.

여야 5당이 당초 지난 1월에 합의의 처리하기로 했던 선거제 개혁 논의도 멈춰선 상태다.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을 위한 법제화 역시 제동이 걸렸다.

24일 국회 및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표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가 현재로서는 가장 큰 암초다.

한국당은 손 의원 의혹을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규정,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정치공세의 장을 만들려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했으나,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고 합의는 불발됐다.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손혜원 청문회' 중재안 역시 별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한국당 전당대회(27일), 2차 북미정상회담(27~28일)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을 기점으로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에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기간 국회 파행에 따른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당마다 정치적 선택에 따라 3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야권 입장에서는 국회의라는 무대가 정부·여당을 집요하게 공격할 수 있는 장(場)이라는 점에서 한국당 내부에서조차 동원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한국당 원내지도부로서는 '빈손'으로 국회에 복귀한다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어 실제 정상화 협상 타결까지는 협로가 예상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대세 굳힌 황교안

리얼미터 지지 조사 60.7%... 김진태 17.3%·오세훈 15.4%

한국당 전당대회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2·27 전당대회 레이스가 24일 중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 분석이다.

당 대표 경선은 우선 모바일 사전투표가 전날 끝난 가운데 이날 사·군·구 현장투표가 실시됐고, 25~26일 일반 국민 여론조사, 27일 대의원 현장투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황 후보는 지난달 입당 후 정치신인에 대한 기대감이 섞인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서 여론조사상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었고, 이번 선거전 내내 '우위론'을 유지했다고 보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어대황'('어차피 대표는 황교안'의 줄임말)이라는 말과 함께 황 후보가 대표로 선출됐다는 가정하에 사무총장 하마평과 당직 인선 기준까지 떠돌기도 했다. 황 후보는 이런 분위기를 살려 남은 투표에서도 자신을 '확실한 1등'으로 밀어달라고 강조하고 있다.

오세훈 후보는 '도로진박(친박근혜)당', '탄핵총리'라는 내년 총선에서 필패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중도우파로의 외연 확장이 가능한 자신에게 전략적 한표를 행사해 달라고 강조하고 있다. 오 후보 측은 선

거 중반전까지도 '추격자'의 입장이었지만, 중반전을 향해 갈수록 '박근혜 극복론' 등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탄력을 받으며 황 후보를 턱 밑까지 치고 올라갔다고 자신하고 있다.

김진태 후보는 열성적인 지지층인 이른바 '태극기 부대'의 표심을 남은 투표에서 최대한 결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TV 토론 등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에 관해 선명한 메시지를 강조하며 황·오 후보와 차별화했다.

한편, 한국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당 대표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황교안 후보가 60%가 넘는 지지율을 보여 다른 후보를 크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나왔다.

김진태, 오세훈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2위 자리를 다투는 것으로 파악됐다.

리얼미터가 지난 20~22일 전국 19세 이상 한국당 지지층 710명을 대상으로 차기 당 대표 후보 지지도를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7%포인트)한 결과 황 후보가 60.7%로 1위를 차지하고, 김진태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각각 17.3%, 15.4%로 그 뒤를 이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사·군·구 현장투표일인 24일 서울 영등포구선관위에 서한 당원이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공수처 수사 국회의원 제외' 난색

민주 "고려한바 없다"... 한국당 "문제는 검사 독립성"

여야는 2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난색을 표했다.

여당은 공수처의 대상·위상과 관련해 대통령·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검찰총장·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비리 행위를 수사하는 독립기구를 만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현재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검찰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 정치 권력화가 우려되는 만큼, 이 권한들을 공수처에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현행 제도를 통해서도 고위 공직자 비리 감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의 공수처 도입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여야는 이러한 논의 공전 상태에 조 수석이 해결책으로서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모두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당내에서

관련 논의를 한 바 없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방안은 대해 고려한 바 없다"며 "공수처 논의를 이끌고 있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어떤 논의 결과가 나올 경우,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정현 대변인은 "공수처라는 게 고위직의 특권을 조사하라는 건데, 의원을 제외하게 된다면 하나의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공수처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수사대상에 의원직이 포함된 공수처에 반대하고 있던 게 아니라,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 소속 검사들의 독립성이 근본적인 문제지, 의원들을 수사하지 않을 테니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의원을 수사하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은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NPL 과 실전경매(기초)

11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강의 일시 ●
조선대 : 3월 8일(금) 주간 3시, 야간 7시

주식투자예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 고수익의 법.

임대 공장 소유주는 자본없이도
자기 소유 공장 만들어 드림!

2019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9년 2월 1일(금) ~ 2월 27일(수)
- 교육기간 : 2019년 3월 8일(금) ~ 6월 14일(금)
- 매주 금요일 주간 3시/야간 7시
- 수강료 : 22만원(3개월)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접수상담지도교수 경영학박사 송용욱
- H. 010-9416-1200 T. 062)230-7700~2

여수, 땅

- 여주시 봉강동 343-1, 2, 344번지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 대지 431평, 6차선 도로접
- 일반상업지역-90%
- 대출-18억7500만원
- 시세/감정가-약 35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터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매 - 30억 (회사사정상 급매)

문의. 010-6834-7400

금당공인증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무안군 해례면 바다 150m 대지 790㎡ 팬션 전원생활적합 4500만원
-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편한생활적합 대지 268㎡ 3300만원
- 무안군 일로읍 화산연꽃자수지 집 1192㎡ 조용한 생활적합 1억2700
- 별장 나주시 다시면 대지 450㎡ 시설·환경 좋은 2층 97㎡ 3억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투자·매도·교환

- 남구 월산동 동신대 사회복지관 부근 3층주거지 228㎡ 2억6천
- 강진 성천면 월출산길 4차선 접 4630㎡ 대형 저수지 인근 양양시설적합 5억
- 화순 이양면 매정리 산·담 72532㎡ 은행 9천 매도 1억2500
- 농성초 건너편 월산동 소방도 코너 상가주택 대지 118㎡ 주택 78㎡ 1억9천
- 완도 군외면 원동리 임 7751㎡ 투자에 좋은 바다인접 4억6천
- 무안읍 원동·다세대부지 군청 옆 1031㎡ 투자에도 좋은 2억
- 담양 금성면 추월산·순창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 서구 생촌동 운천저수지 부근 2층 주택 땅 105㎡ 새주택 118㎡ 2억6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7억5천

상가건물

- 화순 능주면 소재지 땅 588㎡ 3층건물 1128㎡ 은행 1억 인수액 1억천
- 백운동로타리와 대성로타리 사이 대로변 땅 258㎡ 건물 265㎡ 8억
- 무안군청 앞 대지 202㎡ 3층 건물 전체 3천에 연 1500 임대 4억
- 완도읍 정동리 땅 4024㎡ 건평 1203㎡ 연수원 등 적합 9억
- 월산동 무진동 부근 버스도 접 도지 155㎡ 건물 4층 263㎡ 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정읍 신대인읍 상업지 1273㎡ 아파트·다세대 적합 은행4억 매도 1억
- 북구 북동 금남로 47억 대로점 중심상업지 364㎡ 13억 7500
-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바다인접 2346㎡ 펜션 등 적합 5억
- 충장로 4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100.26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진, 농성초교옆문앞

웰다잉전문상담사 및 강사과정 모집

● 3월 16일 개강 ●

2018. 2. 4일 부터 시행된 "사전명명의료의향서의 홍보, 상담, 등록 등 인식교육을 담당할 "웰다잉전문 상담사 및 강사과정 모집!!

모집기간 2019년 2월 11일(월) ~ 3월 12일(화) 선착순 00명
교육기간 2019년 3월 16일(토) ~ 3주(토) 총 30시간
수강료 25만원, 자격증비 5만원, 교재비 1만원
계좌번호 광주은행 1107-020-709185 대한웰다잉협회 광주광역시지부
교육장소 KT빌딩 6층(전남여고 옆), (주)리치클드에셋 강의실
상담전화 ☎ 062)511-0030, 010-5522-9700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명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대한웰다잉협회 광주지부

★ 본 지부에서는 "사전명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홍보, 상담, 등록 등의 업무를 무료로 봉사 하고 있습니다.
★ 기관, 단체의 요청 시 전문강사, 전문상담사를 파견합니다.
· 문의전화 : ☎ 062)511-0030 · 팩스 : 062)512-8767